



제목	Democracy in Iran: Why It Failed and How It Might Succee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arva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 11. 7.
저자	Misagh Parsa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416
ISBN 또는 ISSN	978-0674545045

내용 요약

이 책은 이란의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인 동시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4개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정권 형태에 대한 것으로서 저자의 주장은 이슬람 공화국이 단 하나의 구조, 단 하나의 정당에 기초하였으므로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 이란 젊은이들은 정치적 독실함(예배 참여, 금요 집단 예배 참여, 비신자의 공직 참여 반대)보다 개인적, 사회적 독실함(이슬람과 자기 동일시, 라마단 금식)을 유지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 형태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 이슬람 공화국은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지만 왕정 복원을 주장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009년 이란에서 선거 부정을 일소하기 위해 벌어진 ‘그린운동(The Green Movement)’은 국가에 도전할 능력을 갖춘 중산층을 양성하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넷째, 민주주의를 이란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는가의 논의이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인플레이션, 실업, 부의 불평등, 마약 중독, 범죄, 두뇌유출 등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점진적인 제도 개혁으로는 이란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정치 생활과 민간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직 없이는 이란 정부는 개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란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길, “또 다른 혁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